광주 중앙공원 사업자 호반 최종 결정

광주시, 금호산업 이의신청서 기각
"금호산업 귀책사유 없고 市 실수"
금호 "위법행정" 법적 대응 나설 듯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 2단계사업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를 금호산업㈜에서 ㈜호반으로 변경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하지만 자격을 박탈당한 금호산업이 소송전을 예고하고 있어 후유증이 이어질 전망이다.

광주시 정종제 행정부시장은 21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간공원 특례 2단계사업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가 탈락한 금호산업㈜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부시장은 "금호산업이 제출한 의견서를 다각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 부시장은 "이번 제안서 평가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은 광주시의 평가 오류를 바로잡고 행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이렇다 할 귀책사유가 없는 금호산업 측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하게 된데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특성상 일몰제가 적용되는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금호산업이 대승적으로 협조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 부시장은 "광주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2020년 6월 말 공원일몰제에 맞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1단계 사업 4개 공원(마륵, 송암, 수랑, 봉산)은 제안사업 수용 여부를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정 부시장은 "2단계 5개 공원(중앙, 중외, 일곡, 운암산, 신용) 6개 지구는 4개월 내에 협상을 마무리하고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심의와 1년이 소요되는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2단계사업 공모에 제안서가 접수되지 않은 송정공원은 민·관 거버넌스 회의 등을 통해 사업시행면적 등을 보완하고 이달 말 재공고하겠다"고 밝혔다.

금호산업이 탈락하면서 20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대형 개발사업권은 2순위인 호반이 거머쥐게 됐다.

결국 광주시의 설명처럼 귀책사유가 없는 데도 자격을 박탈당한 금호 측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적법하게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효력을 부인하고 새로이 재심사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를 위반한 것이다"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5·18 역사 왜곡·폄훼 체계적 대응 전담팀 운영

5·18 기념재단이 5·18민주화운동 역사 왜곡·폄훼에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5·18 기념재단은 22일부터 5·18 왜곡 저지 대응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5·18 연구진, 웹(유튜브) 전문가, 법률인, 모니터링 수행단체 등이 참여하는 전문대응팀을 구성·운영하고, 재단 홈페이지에 각종 가짜뉴스의 진실을 공개한다.

지만원·전두환 재판 결과 등 그동안의 법률 대응 성과를 정리한다. 왜곡 제보 관련 게시판도 운영한다.

재단은 또 웹사이트, 종편 방송에 대한 모니터링을 유튜브까지 확대·강화하고 법률 검토를 통해 5·18 왜곡 콘텐츠 게시·유통 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다.

재단은 이를 위해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 올 상반기 중 '온라인 왜곡 저지 시민행동단' 활동가를 모집한다.

왜곡 관련 게시물(글·영상 등)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요청하거나 관련 포털사이트에 항의 글을 게시하는 등의 활동을 맡는다.

시민행동단에는 연령·지역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최남규 기자

세배는 이렇게 21일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어린이들이 명절 차례상 앞에서 세배를 하고 있다.

광주 '어린이집 차량 출입 입주민 갈등'…구청 중재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어린이 통학차량 단지 내 출입'를 놓고 입주민 간 갈등이 계속돼 관할구청이 해법 모색에 나섰다.

21일 광산구청에 따르면 구청 주택과 공무원 2명은 이날 오전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모 아파트를 방문, 입주민 대표회의 대표와 관리사무소장을 만나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에서 구청 측은 '어린이 통학차량 출입금지'를 담은 새 주차시설관리규정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다만 어린이 통학안전을 우려하는 입주민 민원내용을 전달하며, 향후 재심의가 진행될 경우 전 입주민 대상 찬반투표·과반수 의결을 거쳐 다시 결정할 것을 입주민 대표 측에 제안했다.

입주자 대표회의 측은 구청의 제안을 받아들여 재심의 절차 때 입주민 찬반투표 의결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 규약에 따르면 입주민 10분의 1이 재심의를 요구할 경우 입주민 대표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재심의 절차가 진행된다.

반발하고 나선 입주민들은 지난주 입주민 10분의 1이 넘는 서명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아파트는 외부차량의 무분별한 출입에 따른 불편을 이유로 지난해 말 차량번호판 자동인식 출입관리시스템을 도입한 뒤 지난 10일부터 통학차량의 단지 내 출입을 전면 통제해 입주민 사이 갈등을 빚고 있다.

또 일부 입주민은 지난 19일부터 아파트 정문 앞에서 '택배 실은 택배 차는 통과되고 아이들 유치원 차량은 왜 통과되지 않는가' '우리 아이들은 입주민이 아니냐'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임형택 기자

'멱살 잡고 주먹질' 경찰관 폭행 남성들 덜미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폭력을 휘두른 남성들이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1일 자신을 부축하던 경찰관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A(4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2시20분께 광주 광산구 월곡동 한 길에서 '행인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만취한 A씨는 귀가를 요구하던 경찰관에게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광산경찰서는 이웃 갈등을 중재하던 경찰관을 때린 B(53)씨도 입건해 조사 중이다.

B씨는 지난 19일 오후 10시10분께 월곡동 모 아파트에서 이웃과 다투는 것을 말리던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든 혐의다.

B씨는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이웃과 승강이를 벌이다 경찰관에게 폭언·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형택 기자

병원 도주 광주소년원생 도피 도운 친구 입건

광주 북부경찰서는 21일 병원에서 달아난 소년원생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친구 A(18)양을 불구속 입건했다.

A양은 지난 18일 오후 4시6분께 광주 북구 운암동 한 병원에서 도주한 소년원생 B(18)양의 도피를 하루 동안 도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은 B양에게 택시비와 숙식을 제공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치료 차 병원을 찾은 B양은 동행한 광주소년원 공무원 3명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창문으로 달아났으며 택시기사 전화를 빌려 A양에게 전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는 B양은 보호관찰소에 신고해야 하는 규정을 어겨 고룡정보산업학교에서 위탁 교육을 받고 있었다.

경찰은 지난 19일 오후 4시15분께 A양과 함께 있던 B양을 붙잡아 소년원에 인계했다.

지하 노래방 출입구 불 지른 50대 검거

'손님으로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하 노래방 출입구에 불을 지른 50대가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1일 노래방 출입구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5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10분께 광주 북구 양산동 B(51)씨의 노래방에서 라이터로 불을 붙인 옥외광고물(풍선형 간판)을 건물 출입구 계단에 던진 혐의다.

이 불로 건물 출입구 일부가 탔으나 B씨와 손님 등 4명은 긴급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 조사 결과 만취해 행패를 부리던 A씨는 '영업이 끝났다. 노래방에서 나가달라'는 B씨의 말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건물 3층에 사는 건물주와 노래방 주인 B씨가 불이 난 것을 곧바로 발견하고 손님들을 대피시켰다. 대피 직후 소화기로 불을 껐다"고 말했다.

출소 5일 만에 절도 행각 60대 구속

광주 동부경찰서는 21일 주택·편의점 등지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절도 등)로 A(6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4시30분께 광주 동구 지산동의 주택에서 열려있는 문으로 침입, 의류 2점을 훔치는 등 지난해 11월6일부터 최근까지 지역 내 상가에서 5차례에 걸쳐 18만원 상당의 의류와 식료품을 훔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절도 혐의로 복역하고 지난해 11월1일 출소한 뒤 또다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배가 고파 편의점에서 라면을 훔쳤다. 의류매장과 주택에서 훔친 옷은 직접 입으려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